



보도자료



보도일시	2021. 6. 30.(수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온라인 : 2021. 6. 29.(화) 정오 12:00 이후		총 5 쪽 (붙임 1쪽 포함)
배포일시	2021. 6. 29.(화)	담당부서	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보호환경과
담당과장	김성벽(02-2100-6291)	담당자	장유남 사무관 (02-2100-6292) 차경선 주무관 (02-2100-6293)

온라인 청소년 유해정보 점검 본격 시작

- 김경선 차관, 6월 30일(수)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방문 -

- 여성가족부, 점검단(모니터링단) 200명 운영, 사업자와 청소년보호 협력체계 구축
- 2주간 5만여 건 점검, 2만여 건에 대해 성인인증, 청소년 유해표시 등 자율조치 요청

□ 여성가족부(장관 정영애)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온라인 수업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방송매체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상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점검을 본격 시작했다고 29일(화) 밝혔다.

* 거의 매일 이용률(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) : ('16) 54.9% → ('18) 68.0% → ('20) 77.2%

** 최근 1년 초등학생의 성인용 영상 이용률 : ('16) 18.6 → ('18) 19.6 → ('20) 33.8%
(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, '21.3월)

○ 앞서 지난 3월 여성가족부는 '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(모니터링단) 운영'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, 5월에는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(센터장 지세선)*에서 총 200명의 점검인력을 추가 선발하였다.

*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법상 의무사항(청소년유해(㉠금) 표시, 성인인증 등) 점검 및 모니터링 수행 기관(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위탁운영)

□ 모니터링 인력에 대해서는 직무교육을 실시(6월 1일~4일)한 후 6월 7일부터 음란 영상물, 술·담배 대리구매, 음주 조장(일명 '술방'), 청소년유해물건(리얼돌 등 성기구류) 및 유해업소 홍보, 도박, 청소년 성매매 등 불법·유해정보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다.



- 점검 시작 후 2주간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, 인터넷방송(동영상) 서비스 게시물(콘텐츠) 53,114건을 점검했으며, 그중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20,378건을 적발했다.

(단위 : 건)

구 분	점검 수 (A+B)	확인완료			확인 진행중* (B)
		유해성 있음	유해성 없음	소계(A)	
합계	53,114	20,378	14,315	34,693	18,421
SNS	27,119	9,933	1,364	11,297	15,822
인터넷방송 동영상서비스	25,995	10,445	12,951	23,396	2,599

* 점검인력의 1차 점검 후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의 최종확인이 끝나지 않은 게시물 (점검기간 : 6.7.~6.18. 2주간)

□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물 2만여 건에 대해 사업자에게 성인인증, 청소년 유해표시 등 **업계의 자율조치를 우선 요청**하고, 그 외 유해·불법 등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은 관계기관 심의·차단 요청,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.

-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, 인터넷 방송서비스 사업자 등과 협의하여, △**일괄 신고 시스템**, △**전용 신고 이메일** 등 자율조치 협력체계(Hot-line)를 마련했다.

- 또한 지난 6월 중순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사업을 수행하는 **한국 청소년단체협의회가 유튜브 신뢰기반 신고자 프로그램(YouTube Trusted Flagger program)***에 가입하여 다량의 유해 콘텐츠를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청소년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.

* 유튜브(YouTube)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는 콘텐츠를 유튜브에 신고하는 데 특히 능력이 있는 개인, 정부 기관 및 비정부 단체(NGO)에 일괄 신고 도구를 제공하고 신고된 콘텐츠를 우선 검토하여 조치 가능성을 향상하는 프로그램



□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는 ‘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(랜덤) 채팅앱(이하 ‘채팅앱’)*에 대한 점검도 진행했다.

* ▲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, ▲대화 저장, ▲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애플리케이션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(‘20.12.11. 시행)

○ 6월 11일까지 진행된 점검 결과, 현재 국내 208개, 국외 14개 등 222개의 채팅앱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어 지난 2월 운영 중이던 398개 앱에서 크게 감소(176개, 44.2%)한 것으로 나타났다.

(단위 : 개)

구분	국내 무작위 채팅앱			국외 무작위 채팅앱		
	‘21.2월	‘21.6월	증감	‘21.2월	‘21.6월	변동
고시기준 이행 (청소년유해매체물 아님)	227	198	△29	9	13	4
고시기준 미이행 (청소년유해매체물 해당)	27	10	△17	135	1	△134
청소년 보호법 의무이행 (유해표시, 성인인증)	15	6	△9	0	0	0
청소년 보호법 위반 (사정명령 및 고발 대상)	12	4	△8	135	1	△134
합 계	254	208	△46	144	14	△130

○ 222개 채팅앱 중 청소년 보호법 위반*으로 적발된 채팅앱은 5개였다. 여성가족부는 국내 채팅앱 4개에 대해 우선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고, 국외 채팅앱 1곳은 앱 유통사업자에게 상품판매 중단을 요청할 방침이다.

*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표시와 앱 이용자의 성인인증 의무 등을 위반

□ 한편,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6월 30일(수) 오후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(서울 강서구 소재)를 방문하여, 현장의 의견을 듣고 건강한 매체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.

-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“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청소년의 매체 이용률이 높아지고, 저연령 청소년의 성인 영상물 이용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.”라며,
- “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 운영을 통해 온라인 매체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,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자율조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【붙임】 청소년유해매체 모니터링단 사업 개요



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"공공누리 제1유형(출처표시)"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

□ 개 요

- (목 적) 온라인 매체물의 청소년 유해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매체이용환경 조성
- (사업시행주체)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(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)
- (사업예산 및 규모) 13.12억원, 모니터링 인력 등 200명 운영

□ 사업내용

-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
 - 무작위(랜덤) 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 이행 점검
 - 국내외 앱마켓 내 청소년이용가 애플리케이션의 청소년유해성 검토 등
-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모니터링
 - 국내외 포털, 커뮤니티, SNS 내 청소년유해정보 유통 실태 점검
- 인터넷 방송 등 모니터링
 - 국내외 인터넷방송 내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·홍보 실태 점검
 - 국내외 인터넷방송 내 청소년유해영상물 유통 실태 점검
 - 국내외 미디어콘텐츠 제공(OTT) 서비스 청소년이용환경 조사 등

□ 사후관리

-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여성가족부 후속 조치 등 추진 (자율규제, 사업자 시정요구, 경찰 고발 등)